

FTA체결(예정) 국가에 대한 충청남도 수출확대 방안

배경화·김양중

발 간 사

전 세계가 국경 없는 치열한 무역전쟁 속에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으로 무역시장이 개방되고 우리나라도 2004년 4월에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2010년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증가 전망에 따라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실제 수출이 활기를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FTA추진과정에서 체결예정국가를 통한 지자체의 수출정책도 변화해야 하며, 충청남도에서도 자체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정책과 더불어 지역별로 수출여건이나 수출기업들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출확대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내의 수출기업의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수출유망산업을 발굴하고, FTA체결 및 예상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EU, 한·인도, 한·미 FTA나 한·EU FTA, 그리고 지금 추진을 검토 중인 한·중 FTA 등을 통한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FTA 체결과 발효에 따른 산업 간의 이해차 발생은 산업구조 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후적 보완책 수준이 아닌 충청남도 자체의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고려한 FTA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충청남도의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배경화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요약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FTA를 활용한 기업의 수출정책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자체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좌우되는 경우가 크다. 즉 FTA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큰 틀을 짜는 수준이라면, 지방정부에서는 큰 틀과 더불어 지역별로 수출여건이나 수출기업들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출확대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수출확대전략은 기존에 해외시장개척이나 정보제공, 바이어초청 상담회, 인프라, 자금지원 등의 복잡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차별화해서 운영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충남도에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내의 수출기업의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수출유망산업을 발굴하고, FTA체결 및 예상국가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의 수출산업여건을 분석하고, FTA체결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체계 강화하는 방안 제시하고, 둘째, 기존 충남도의 수출기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며, 셋째, 충남도 자체 및 유관기관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해결 및 대행을 위한 인력양성과 지원체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FTA 추진에 따른 충남도 수출산업의 확대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신흥시장 진출에 따른 접근전략이나 기존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및 충남도의 수출지원 체계 분석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발효가 WTO에 신고되어

1994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역무역협정이 매우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엔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이 무려 285건이나 발효 중이다. 우리정부에서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EU협상타결까지 FTA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발효되거나 발효될 예정인 FTA까지 성사될 경우 이를 통한 거래비중은 전체무역거래의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FTA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내수중심의 비중이 높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 FTA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내 FTA국내대책본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업의 FTA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대한상의, KOTRA 등 4개 기관을 FTA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의 수출산업지원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충남도 자체의 수출 및 통상지원조직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체계와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의 수출기업 육성지원을 지원정책체계를 보면, 전국 최초로 행정인턴을 활용한 수출 전담인력 지원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해외마케팅 인력이 필요한 도내 13개 중소기업에게 17명의 수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7개월간 무역실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III. 주요국의 지역차원에서 FTA활용실태 및 전략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시민단체 등 국내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WTO 뉴라운드 등 통상협상에 환경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FTA 등 지역통합협상에도 환경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미국의 통상구조와 FTA정책 등을 고려해 보면, 미국의 국제적인 통상 및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무역기회의 증대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 등 국제무역협상을 지원하고 산업 및 경제분석·협상지원·무역협약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국제무역조약에

따라 미국상품에 대한 해외시장을 개방하고, 개도국 정부 및 규제부처와 협력하여 각종 규제장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기업적·관리적 요소 분석을 토대로, 무역장벽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킹과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등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캐나다의 FTA추진현황을 보면 유럽지역의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를 발효시키고 EU와의 FTA협상을 개시하는 등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를 통해 지나친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캐나다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과의 FTA 추진시 노동과 환경 관련 사항을 중요시 여겨 노동 협력 협정(LCA : Labour Cooperation Agreement), 환경협정(EA : Agreement on the Environment)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산업별로 캐나다는 산업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였다.

IV. FTA체결에 따른 충청남도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원 전략

1. FTA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① FTA 추진에 따른 수출 및 구조조정금융 지원체계 강화

충청남도의 기업들이 FTA타결 및 협상국가에 대한 진출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체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강화해야 한다. 우선, 수출금융측면에서 기존의 수출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는 FTA로 인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FTA추진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관세 지원 확대

충청남도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품목이 해당국가에서 특혜관세 등에 대해 중

양정부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제원산지정보 및 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FTA활용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관세혜택프로그램들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2. 기업의 적극적인 FTA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전략산업과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한 “Two Track”지원체계 강화

FTA로 인해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과 인삼 등 음식료품으로 대변되는 향토 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일명 “Two Track”수출마케팅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전략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활성화전략으로서는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산업부문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력산업 중 전략산업부문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수출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삼 등 음식료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충청남도의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두 방향(Two Track) 마케팅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개척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이다.

② 수출기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강화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인프라 강화는 다방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해외마케팅 지원 FTA체결국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추진시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국고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③ FTA체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강화

FTA활용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함. 우선, FTA체결국에 대한 관세, 법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수요부문,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바이어의 통역이나 해외진출시 번역인력수요 부문이다. 이 두 가지의 수출전문인력부문에 대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역의 업계, 학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남도의 전략 및 향토산업별로 차별화된 교육훈련 및 산업기술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산업별 인력공급 분석을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FTA 관련 국가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FTA활용도 제고를 위한 FTA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충청남도내 기업들의 FTA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FTA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정내용을 파악과 활용의지가 요구된다. 이를 전제로 개별 FTA에 규정된 조건을 기업으로 하여금 잘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이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

⑤ 기술개발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기술개발네트워크 구축

충청남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의 초기단계부터 수출상품화를 목표로 시장 지향형 R&D를 추진하고, 제품시험, 표준화, 디자인, 인력양성, 기반 구축을 포함한 전 주기적인 R&D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체계의 단계별로 충청남도내 소재한 대기업과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여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FTA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기술개발을 위한 상생네트워크 구축은 핵

심기술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공급가치사슬 및 분업구조를 고려한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에서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프로그램 마련

①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의 협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농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유럽국가나 미국 등의 저가 농산물과 육류 등이 수입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주력산업과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② FTA추진에 따른 도내 무역피해기업 구제프로그램 마련

FTA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한다.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측면은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들만이 생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FTA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미래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및 충청남도의 수출지원 체계 분석

- 1.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및 지역경제의 미치는 효과분석 6
- 2. 충청남도의 수출산업지원체계 및 FTA활용상 문제점 분석 18

제3장 주요국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 1. 미국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23
- 2. 캐나다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25

제4장 FTA체결에 따른 충청남도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원 전략

- 1. FTA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29
- 2. 기업의 적극적인 FTA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2
- 3.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프로그램 마련 42

제5장 결 론

참고 문헌 49

- <부록 1> 2010년도 16시·도 광역자치단체 수출지원시책 비교 51
- <부록 2> 16시·도 광역자치단체 수출지원시책 세부현황(2010년도) 52

표 차 례

<표 1>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표 2> 우리나라의 FTA추진 과정	9
<표 3> FTA 체결국 경제규모(GDP)비교(08년 기준)	9
<표 4> 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	9
<표 5> FTA체결국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비교(08년 기준)	10
<표 6> FTA활용시 애로사항(복수응답)	11
<표 7> 충청남도의 품목별 수출실적	13
<표 8> 충청남도의 국가별 수출실적	13
<표 9> 우리나라 수출의 각종 유발계수(2007)	16
<표 10> 우리나라 수출의 각종 유발계수(2007)	17
<표 11> 우리나라의 수입에 대한 FTA특혜관세 활용률	20
<표 12> 캐나다의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분포 (2008년 12월말 기준)	25
<표 13> 중앙정부의 수출금융 연도별 지원현황	30
<표 14> 일본의 산업활력재생법 운용현황	31
<표 15> 충청남도의 전략산업별 환경변화에 따른 차별화 전략	33
<표 16> 충청남도 향토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전략	33
<표 17>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34
<표 18>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35
<표 19>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35
<표 20> 무역촉진단 파견	35
<표 2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36
<표 22> 중소기업 Global Brand육성	36
<표 23>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36
<표 24> 지속성장 · 고부가가치의 핵심요인 : 디자인 · 브랜드	40
<표 25> 국가별 디자인 경쟁력	40
<표 26>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주요 실적	46
<표 27> FTA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조건, 실적	46

그림 차례

<그림 1> FTA지원정책의 지원체제	8
<그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과 방향	8
<그림 3>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사업추진체계	4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추진과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대비하여 더 높은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객욕구의 다양화, 기술변화속도 등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2010년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증가 전망에 따라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실제 수출이 활기를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출구전략 도입, 유가 및 원자재 수급 불안, 중국의 긴축정책, 환율 변동 등과 같은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들도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 제품과의 주요 경합지역인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더욱 적극적인 수출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경제, 2010.8.26)

국민경제는 공간적으로 많은 지역경제로 구분되어, 지역경제 간에는 산업구조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변화가 국민경제의 변화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산업의 비용구조, 생산기술, 지역특화, 지역 간·산업간 연관관계,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선호도 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김홍배외 3인, 2010) 수출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역할론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질 향상을 위한 수출증대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세계시장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제단체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 수행에 대해 재인식하고 있다.(J. Obben and P. Magagula, 2003.)

한편, 금융위기 이후 충청남도 내 기업은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가동률과 업황이 크

게 하락하였고, 어음부도율 역시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기 침체를 유발함으로써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 수출둔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신동호 · 김세중, 2009)

그러나 2010년 상반기에는 2009년의 금융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대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서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수출이 급상승한 반면에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시 유럽, 일본으로의 수출은 부진하였으며, 대미수출은 '08년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KOTRA, 2010)

수출의존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 현행 수출기업 지원정책은 그 수혜대상이 주로 중소기업들로서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배양을 위한 단계에서는 잘 구비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95년 WTO출범 이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세계화와 함께 확산되었으며, FTA는 RTA(Regional Trade Agreement :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로서 2국 또는 그 이상 국가 간에 관세나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과거에는 주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분야의 관세를 인하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야 등 그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FTA는 체결 당사국간에 지역내 혹은 국가 간 특혜 무역체제를 구성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의 보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WTO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에 따라 기업의 수출지원정책도 변화해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출확대 전략과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유형별이나 FTA체결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특화시켜 중소기업들이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 확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 G20 국가의 무역구제조치 발동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자국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FTA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수입규제 보다는 FTA 등을 통한 시장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신흥국들의 중국 대상 반덤핑 제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국산 우선구매정책

및 기술규제(환경, 안전, 위생 규제 포함) 등의 비관세조치와 경기부진시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FTA를 활용한 기업의 수출정책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자체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좌우되는 경우가 크다. 즉 FTA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큰 틀을 짜는 수준이라면, 지방정부에서는 큰 틀과 더불어 지역별로 수출여건이나 수출기업들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출 확대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수출확대전략은 기존에 해외시장개척이나 정보제공, 바이오초청 상담회, 인프라, 자금지원 등의 복잡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차별화해서 운영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충청남도에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내의 수출기업의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수출유망산업을 발굴하고, FTA체결 및 예상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수출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FTA체결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체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기존 충청남도의 수출기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충청남도 자체 및 유관기관의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해결 및 대행을 위한 인력양성과 지원체계 재검토, 마지막으로, 전략적 FTA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 수출산업의 확대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신흥시장 진출에 따른 접근전략이나 기존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 등을 중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FTA 및 충청남도의 수출산업 여건 및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FTA분석 자료와 보고서, 충청남도 자체의 수출산업분석 현황자료들을 참고하는 문헌조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수출확대 전략 및 기존의 수출지원정책, 유관기관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지자체 및 지역의 유관기관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자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서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요국가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사례연구도 병

행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현황을 보면, 우선 박경·신동호(2006), 「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 경제효과와 대책」에서는 한미 FTA가 충남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 영향이 제조업이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의 발전과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연구방법은 기존의 충남지역의 산업현황 및 한미 FTA 자료 등을 참고한 문헌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한미 FTA의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분석하고 지역격차,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한미 FTA의 간접적인 효과도 검토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중앙정부의 건의사항과 산업구조조정 및 피해구제 등 충남이 대내적으로 대처할 사항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홍유수의 2인(2008), 「거대경제권 FTA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대경제권 FTA전략을 점검하고, 거대경제권 FTA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FTA추진에 따른 산업별·기업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업체방문, 면담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FTA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산업구조조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전략이라는 일차원적인 대응전략 도출이 목적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향과 근본적인 대안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오동윤(2007),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의 수출경로를 유형화한 후 현행 통용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관련 통계에 기초하여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직접수출 역량과 간접수출 역량으로 구분하고 그 추세를 파악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방법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존 자료를 검토하는 문헌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직접수출 현황과 수출지향도 및 수출기여도 등 다양한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소기업 품목별, 대상국가별 수출현황을 통해 직접수출 역량을 평가하였다. 특히 간접수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

해 단계별 추정방법을 개발하여 500여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방안 및 전략을 마련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

장별	목 차	주요 내용	연구방법
제1장	서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제2장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및 충청남도의 수출지원 체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및 지역경제의 미치는 효과분석 - 충청남도의 수출산업지원체계 및 FTA활용상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사례 분석 - 자료 분석
제3장	주요국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 캐나다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제4장	FTA체결에 따른 충청남도 수출 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조사 - 사례조사
제5장	결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의 연구방향 및 한계 	

제2장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및 충청남도의 수출지원 체계 분석

1.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및 지역경제의 미치는 효과분석

1)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발효가 WTO에 신고되어 1994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역무역협정이 매우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엔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이 무려 285건이나 발효 중이다.(장지중, 2010.9.1) 이렇듯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FTA는 기존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가 확산되면서 국내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서, 특정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른다.(강태훈, 2009) 따라서 이에 속하지 못할 경우 무역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외의존형 경제발전구조의 성공여부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FTA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를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정부에서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EU협상타결까지 FTA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발효되거나 발효될 예정인 FTA까지 성사될 경우 이를 통한 거래비중은 전체무역거래의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FTA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내수중심의 비중이 높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방정부에 있어 FTA는 기업의 수출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유리한 FTA를 체결하기 위해 통상, 관세 등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체결에 따른 기업 및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최미희, 2007.9)

우리나라는 한미FTA체결에 이후 해외진출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시장개방 속도와 일정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인도 등 BRICs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진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생산성학회, 2007.10)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FTA체결로 자국 수출·통상 환경을 개선하려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중국의 G2급부상, 인도시장의 성장 잠재력 확인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관심이 구미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른,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수출기업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2010년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증가 전망에 따라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실제 수출이 활기를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출구전략 도입, 유가 및 원자재 수급 불안, 중국의 긴축정책, 환율 변동 등과 같은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들도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FTA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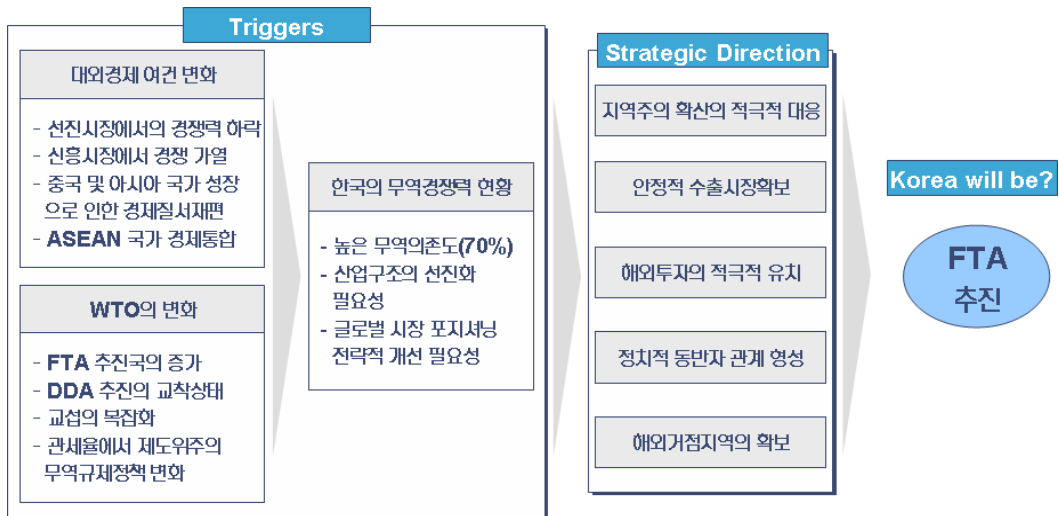
정책적으로 FTA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내 FTA국내대책본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업의 FTA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대한상의, KOTRA 등 4개 기관을 FTA활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무역경쟁력을 높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록경제와 원활한 원부자재 확보, 지역거점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FTA가 체결될 경우 지역경제의 산업발전전략은 지역별 산업적 환경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김홍배외 3인, 2010)

<그림 1> FTA지원정책의 지원체제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0, 내부자료.

<그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과 방향



자료 : 삼일회계법인, 2008.5.6, 『FTA추진에 따른 무역피해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편, 이처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FTA정책 추진이 금융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지역이나 인천, 부산, 경남지역 등은 FTA를 지역 기업이 효과

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우리나라의 FTA추진 과정

구 분	타결(7건)	협상중(8건)	검토 및 여건조성(7건)
발 효	칠 레('04) 싱가포르('06) EFTA('06) ASEAN('07) 인 도('10.1)	캐 나 다 멕시코 GCC(걸프협력회의) 페 루 호 주	Mercosur(남미공동시장) 중 국 러시아 터 키
발효전	미국('07, 서명) EU('09, 서명)	뉴질랜드 콜롬비아 일 본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이스라엘 한·중·일

자료 : 지식경제부, 2010.2.26.

〈표 3〉 FTA 체결국 경제규모(GDP)비교(08년 기준)

(단위 : 10억불, %)

구 분	FTA 既 발효국				타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¹⁾	미국	인도	EU
경제규모(GDP)	170	182	966	1,324	14,265	1,210	18,394
세계경제비중(%)	0.3	0.3	1.6	2.2	23.4	2.0	30.2
누 적	0.3	0.6	2.2	4.4	27.8	29.8	60.0

자료 : IMF, 2009, 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주1 : ASEAN은 싱가포르 제외 수치임.

〈표 4〉 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발효후)
전체	수출	1,938.2	2,538.4	2,844.2	3,254.6	3,714.9	4,220.1	16.8
	(증감률)	(19.3)	(31.0)	(12.0)	(14.4)	(14.1)	(13.6)	
對 칠레 ('04.4발효)	수출	5.2	7.1	11.5	15.7	31.2	30.3	42.4
		(13.9)	(36.9)	(62.5)	(36.1)	(98.9)	(△2.7)	
對 싱가포르 ('06.3)	수출	46.4	56.5	74.1	94.9	119.5	162.9	30.1
		(9.8)	(21.9)	(31.0)	(28.1)	(25.9)	(36.3)	
對 EFTA ('06.9)	수출	11.9	8.6	10.9	17.3	11.2	25.2	32.2
		(41.5)	(△27.4)	(26.3)	(58.7)	(△35.1)	(124.6)	
對 ASEAN ¹⁾ ('07.6)	수출	130.9	151.2	166.4	183.3	223.1	272.1	21.8
		(10.6)	(15.5)	(10.1)	(10.1)	(21.7)	(22.0)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주1 : ASEAN은 싱가포르, 태국 제외

〈표 5〉 FTA체결국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비교(08년 기준)

(단위 : 억불, %)

구 분	FTA 既 발효국				타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¹⁾	미국	인도	EU
교역액	71.6	246.5	66.6	655.5	847.4	155.6	983.6
교역액비중(%)	0.8	2.9	0.8	7.6	9.9	1.8	11.5
누 계	0.8	3.7	4.5	12.1	22.0	23.8	35.3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수출입총괄, 국가별 수출입실적 (www.customs.go.kr)

주1 : ASEAN은 싱가포르 제외 수치임.

한편, 정부에서는 2010년 6개의 세부수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확대, ② 해외마케팅 인프라 강화, ③ 선진 및 신흥시장의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④ 저비용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 ⑤ 우리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 ⑥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동반한 수출의 내실화 추진 등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는 이미 선진·신흥시장의 차별화된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IT 등 한-EU FTA 유망품목 진출 지원 및 FTA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미·UN 등 해외조달시장 및 글로벌 아웃소싱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저하되어가는 선진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품소재의 만성적 대일적자 해소를 위해 한일 R&D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섬유패션·생활용품 등 엔고를 활용한 일본의 소비재 시장·유통망 진출을 추진하고, 신흥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도와 아세안 지역의 FTA활용과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¹⁾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체 중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FTA대책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12.0%이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업체”는 75.0%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체규모가 클수록 비교적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FTA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전체적으로 FTA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FTA활용업체의 경우 “난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활용곤란(55.2%)”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FTA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31.3)”, “FTA관련 필요 정보의

1)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FTA대책을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대적 부족(26.9%)”,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FTA관련 정보의 실효성 부족(25.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FTA관련 규정 및 정보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소기업중앙회, 2010.7)

〈표 6〉 FTA활용시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 개, %)

구분	응답수	난해한 원산지규정	FTA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FTA관련 필요 정보의 절대적 부족	정보의 실효성부족	한미FTA등 발표 지연
전체	67	55.2	31.3	26.9	25.4	14.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0.7.,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p.10.

2) FTA추진이 충남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가적으로 FTA의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우선,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 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수출 증대, 생산증대, 고용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에 견인차로 작용한다. 둘째,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다양한 나라와의 FTA체결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로 인해 선진적인 경제시스템이 도입되고, 투자자 보호수준이 높아지면 국내투자여건이 성숙되어 투자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대기업은 자체 상품이 시장지배력이 있고,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시장이 다양하고 상호 이질적이기 때문에 목표시장이 어디냐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출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이영주, 2010.3)²⁾ 수출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방향으로는 “정보제공”, “환위험 등 수출관련리스크 경감”, “수출시장이 확보된 기술 및

2) 중소기업의 수출 목표시장은 선진국(60.2%), 중국(22.1%), 기타 개도국(10.4%), 동남아(7.2%)의 순으로 나타나 선진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 우선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내용“, “비용보조의 지원보다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이영주, 2010.3)

한편, 최근 충청남도의 실물경제에서 수출 동향을 보면,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1차 금속,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차 금속은 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 호조와 대기업의 고로 가동 등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자·영상·통신장비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따른 LCD TV 판매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는 중동, 중남미 수출이 크게 확대된 데다 미국 및 서유럽 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한국은행, 2010.9.1) 다만, 충남지역의 수출 증감률을 보면,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09년 말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2010년 수출 420억 달러를 목표하고 있으며,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증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임재영, 2010.3)³⁾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대비 2008년 수출 1위 품목 수는 16개 품목이 탈락하고 신규로 16개 품목이 진입하여 전년과 동일한 52개로 세계 순위 역시 19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위 품목 수는 2004년 61개에서 2008년 52개로 감소하였고, 특히 1위 품목 중 고기술 품목은 2004년 4개에서 2008년에 1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석기, 2010.8) 주요 탈락 품목의 구성을 보면, 1차 생산품 1개, 섬유산업 4개 품목 등 경공업 제품 6개, 철강 산업 3개, 전기 기기산업 3개 등 중화학공업 제품이 9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50%는 중국에 자리를 빼앗겼고, 나머지는 선진국에 자리를 빼앗겼다. 특히 충남지역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과 중화학공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 충남 지역경제 지역내 총생산(GRDP) 중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제일 크고, 이외 '건설'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종들의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9.2%와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체 생산규모의 37.2% 정도인 48조 7,020억 원의 재화와 서비스가 타 지역들로부터 지역 내로 이입되고 있다. 또한 충남 지역경제 내 중간재와 최종재 수요를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규모는 전체 이입 규모의 45%인 21조 9,720억 원에 해당한다.

〈표 7〉 충청남도의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천불,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9년도		2010년도(1월~0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9,427,823	-8.2	39,797,195	44.2
1	901380	기타의 기기	13,782,906	14	12,663,688	29.7
2	854232	메모리	6,196,698	-3.7	7,335,103	74.9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662,208	13.3	2,696,076	52.8
4	271019	기타	1,852,362	-47.3	1,576,856	9.9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259,459	-26.2	1,548,728	82.3
6	852351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80,666	13.3	820,884	48.5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84,410	-55.6	815,211	429.2
8	290250	스티렌	884,591	-18.7	785,248	21.7
9	853190	부분품	86,357	1,549.60	434,036	1,502.90
10	870899	기타	545,529	-29.4	407,473	25.2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표 8〉 충청남도의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천불, %)

국가명	2009		2010.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9,427,823	-8.2	39,797,195	44.2
중국	15,381,623	25.9	14,663,333	36.6
홍콩	3,957,225	7.9	5,304,290	102.9
미국	3,369,564	-14.4	3,623,947	58.5
일본	2,670,804	-26.1	2,395,219	26.4
대만	1,641,179	-21.5	1,918,725	81.6
슬로바키아	1,957,185	6.1	1,725,107	18.7
멕시코	2,576,111	-21.2	1,678,354	-15.2
말레이시아	931,035	-5	940,449	35.8
싱가포르	891,615	-31.8	865,999	41.1
독일	872,141	-35.8	681,423	4.9
브라질	288,599	-34.6	587,732	238.6
헝가리	374,536	-0.6	508,687	112.9
오스트리아	196,930	-6	394,193	217.2
베트남	306,814	-61.3	333,921	49.2
인디아(인도)	355,283	23.1	310,590	23.7
러시아 연방	240,475	-39.1	294,419	94.6
태국	398,900	7.1	276,958	3.6
사우디아라비아	171,717	-39.8	274,892	149.5
인도네시아	236,106	-41.5	214,194	24.9
이란	188,104	-41.1	191,775	6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한편,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활용을 통한 수출확대 및 수출기업지원전략에 있어 충남지역은 주력 수출업종인 전자부품·통신의 증가세가 2009년 이후 크게 확대된 데다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등도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지역 경제는 이 같은 수출비중의 확대에 힘입어 그 동안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와 동시에 지역 경기가 국외여건 변화에 좌우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충남지역 수출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LCD 등 경기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주력 수출 품목은 각국 간 설비 신·증설 경쟁, 급속한 기술진보 등으로 국제시장가격이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충청남도는 2010년도 수출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FTA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 FTA의 의회비준과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지금까지도 쟁점화 되고 있어 앞으로 논의될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이재관, 2010) 한·EU FTA에 대한 양국의 서명으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EU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상품교역에서 가장 큰 폭의 흑자를 시현했으며, 중국 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큰 지역이다. 한·EU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는 교역구조를 고려할 경우 전국대비 충남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수출비중의 겨우 충청남도의 수출비중이 71%에 달해 충남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FTA협상으로 국가와 국가 간 시장개방 협상시 상대국가에 대한 산업구조와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특수화된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미리 강구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당초 2015년에 600억 달러, 2020년에 930억 달러를 전망했으나, 2000년부터 200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12%를 유지하였으나, 향후 세계무역시장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 될 전망이어서 향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2010년 수출목표를 420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청남도의 2010년 수출지원 계획으로는 미국, EU, 인도 등 무역사절단 13회,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20회, 대규모 충남 우수상품 개최와 토털 마케팅 지원 분야 확대 등 13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FTA추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대효과(최낙균외 2인)로는 우선, FTA에 따른 기대이익은 무엇보다도 FTA체결 대상국의 시장을 선점하는 효

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 각국은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일본 및 대만 등이 상대국과 먼저 FAT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FAT체결을 통해 충청남도 기업들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AT를 통해 무역증진과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FAT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다루게 되며, 이를 통해 현지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의 직접적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시장의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며, 기술, 경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촉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FAT는 생산자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여 기회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경쟁의 심화라는 위협요인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경제개방은 각종 경제 인프라, 자본시장, 재산권관련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의 선진화를 통하여 확대된 무역기회를 현실화하려는 인센티브를 촉발하게 된다. FAT에서 투자자보호 문제, 경쟁제도, 지적재산권 문제, 환경, 노동 분야 등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고 투명화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를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그리고 무역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개방으로 인해 동일한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잉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충남지역의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일부 국가의 경기변동성 증대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즉, 내수시장 규모가 큰 고성장 국가인 인도,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들 국가는 중산층의 급성장으로 충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IT,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외경제규모의가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확대가 필수적이다. 기업이 기존 거래 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매망을 확충하는 데 사활을 걸듯이 국가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FAT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FAT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역외국으로 남는 경우 무역전환효과⁴⁾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요 교역국이 다른 나라와 FAT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은 상대적으로 고(高)관세를 납부해야 하면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그 해외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활동에 유리한 나라로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되는 것도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정대철, 2007)

일곱째,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2007년도 전국산업연관표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98로 수출 10억당 19.8억의 생산을 유발하였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0으로 수출 10억당 6.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유발계수는 9.43으로 수출 10억당 9.4명의 취업을 유발하였으며, 2005년 10.8명에서 2006년 9.9명, 2007년 9.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⁵⁾

〈표 9〉 우리나라 수출의 각종 유발계수(2007)

구 분	2005	2006	2007
생산유발계수	—	—	1.98
부가가치유발계수	—	—	0.60
취업유발계수	10.78	9.89	9.43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0.8, 『월간 충남경제』.

4)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것이고, 이 경우 체약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는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라 한다.

5) 취업유발계수란, 최종수요가 10억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표 10〉 우리나라 수출의 각종 유발계수(2007)

구 분	충남	타 지역	총계
생산유발계수	1.29	0.71	2.00
부가가치유발계수	0.34	0.24	0.58
취업유발계수	4.06	4.04	8.10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0.8, 『월간 충남경제』.

FTA정책에서 다른 국가들보다는 뒤늦은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할 단계에 도달하였는데, 특히 충청남도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FTA추진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협상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 있어 자유무역의 확대는 모든 지역에 일차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칠레 FTA발효에 이어 한·미 FTA는 2007년 체결되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고, 한·EU FTA는 2009년 양측의 협정 가서명을 통해, 향후 국회비준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한·중 FTA에 대한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FTA확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자본집약적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겠지만 전통적인 1차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충남의 경우에도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만, 1차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어 농어촌지역의 침체가 가중될 것이다. 즉 FTA의 확대로 말미암아 충청남도의 농·축·어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차 산업의 위축은 해당 지역의 낙후를 가중시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남의 여러 지역은 1차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실 면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약한 편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선순환 측면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단순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높은 충남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충청남도는 한·미 FTA협상 타결 당시 2007년 체결되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는 GDP증가, 무역수지 개선, 소비자 후생증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는 반면에, 부정적 효과로는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쟁력 약화, 농축수산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에서의 실업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

이 우려되는 점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섬유산업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나, 제약과 농·축·수산업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한·EU FTA는 2009년 양측의 협정 가서명을 통해, 향후 국회비준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EU FTA체결로 인해 향후 자동차, 전자, 조선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되고, EU의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농·축·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동안 최대 2조 7천억 원의 피해와 일자리 상실이 예상된다. 서비스 분야 및 기계, 정밀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국내 시장잠식도 예상된다. 그리고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2009년에 체결되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관세철폐 및 감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 완화로 중소기업의 수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중소기업관련 입장차이로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FTA관련 협상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2009년 7월에 재개하였다는 사실이다. 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이종일, 2010.9), 한국과 미국과의 FTA협정이 체결되면 15.2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한국-EU FTA는 이보다 큰 19.3조 달러 규모의 경제규모를 형성, 16.9조 달러 규모의 NAFTA를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통합을 기록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기업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EU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충청남도의 수출산업지원체계 및 FTA활용상 문제점 분석

1) 충청남도의 수출산업지원체계 분석

충청남도의 수출산업지원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충청남도 자체의 수출 및 통상지원조직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나뉘대로의 체계와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수출기업육성지원을 지원정책체계를 보면, 전국 최초로 행정인턴을 활용한 수출 전담인력 지원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해외마케팅 인력이 필요한 도내 13개 중소기업에게 17명의 수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7개월간 무역실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해

외시장조사 서비스 제공, 해외 유명 검색엔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전략지역 현지 토털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을 통해 수출거래선 발굴부터 시장조사 및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하는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해외마케팅, 금융,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청남도의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무원 순환보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충청남도는 국제통상업무 전문 인력을 가진 직원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국제통상과 배치인력은 서울통상지원 사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을 비롯하여 자체 계약직 활용을 통한 전문 직원 확보에 주력해 가고 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우수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회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 및 사업자간 구매상담회를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나 해외시장개척단 등을 파견, 해외전시회에 진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

2) 충청남도의 FTA활용상 문제점 분석

충청남도의 FTA활용의 부진 문제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적극적인 FTA특혜 활용을 통해 수입 원재료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거나 수출품의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가격경쟁력과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들도 FTA활용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러한 충청남도 기업의 FTA활용 상 문제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인이다.

①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 대해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철폐 또는 인하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별 품목과 관세인하율과 기간 등에 대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기업들 중 상당수가 FTA체결로 별다른 절차 없이 약속된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10%정도만이 자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FTA협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인지도는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강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자신의 비즈니스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FTA추진에 따른 이미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이행현황을 통해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2009년 말 현재 이미 발효된 4건의 FTA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부여되는 FTA특혜관세 활용률은 한·칠레 FTA(90.5%), 한·EFTA FTA(42.5%), 한·싱가포르(29.8%) 및 한·ASEAN FTA(27.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의 수입에 대한 FTA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

기 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1년차	77.7	28.2	43.2	27.0
2년차	93.8	31.4	41.9	—
3년차	93.6	—	—	—
4년차	93.3	—	—	—
누 적	90.5	29.8	42.5	27.0

② FTA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인프라 미흡

FTA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는 별도의 대책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충청남도의 산업구조상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나 자동차 부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음식료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은 FTA추진으로 인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도, 무역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활성화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와 수출을 할 경우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며, 수출에 따른

무관세의 혜택이나 해당 상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조차 없는 실정이다.

③ FTA활용을 위한 차별화된 수출마케팅 지원책 부재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구나 경기, 서울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것이 없다. 즉 해외전시회 진출이나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상담회, 해외우수상품전시회 등 그 유형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④ FTA 추진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피해기업 지역별 지원체계 부재

충청남도에는 산업구조상 음식료품이나 인삼 등의 제품을 생산업체들이 주로 중소기업이며, 기타 중소기업들도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다. 이들 영세한 중소기업은 FTA추진에 따라 개방되는 무관세로 인한 수입개방으로 인해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⑤ 수출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충청남도의 경우 수출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 수출규모가 떨어지지 않으나, 주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이다 보니,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사브랜드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질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양적 확대에 치우쳐 왔다. 이는 충청남도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의 하청중소기업이 많고, 주로 내수위주의 산업들이 대부분이며, 업종으로는 음식료품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의 서로 양극화되어 있으며, OEM생산, 종합상사 등 제품 수출위주의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질적 개선을 통한 양극화 현상 극복이 필요하다.(유병규·이무량, 2007.7.24)

이처럼 충청남도의 FTA활용상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남지역 기업들에 FTA 활용 지원 방향(산업연구원, 2007.12.21)은 우선 FTA가 무엇이고, FTA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인해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한·EU FTA서명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과 개방, 무한경쟁 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개방된 FTA체제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1등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내지는 M&A, 투자유치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충남지역 기업들의 FTA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있어 기업 스스로가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변화 뿐만 아니라 FTA추진에 따른 관세철폐의 세부적인 일정이나 비관세 장벽의 완화, 각종 기업관련 각종 제도적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충청남도의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의 1, 2차 협력기업의 경우에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과감히 혁신하고 적극적인 R&D투자를 통해 원가절감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체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추진하는데 있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개방이 득이 될 수 있으나, 내수시장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향도 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아직 국제적 경쟁력이 열악한 음식료품이나 향토 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FTA확대전략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즉, 자본집약적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겠지만 전통적 1차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만, 1차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침체가 가중될 수 있다.(성태규, 2010.5)

제3장 주요국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1. 미국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시민단체 등 국내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WTO 뉴라운드 등 통상협상에 환경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FTA 등 지역통합협상에도 환경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2000년의 마-요르단 FTA에도 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양준석, 2001.7.3) 그리고 미국은 마-싱가포르 FTA에서 싱가포르가 농업 경쟁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민감 품목은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이끌어냈다. 미국과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NAFTA는 1995년 폐소화 위기 영향으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시켰으며 1982년 외채 위기 시 경제회복에 7년이 소요된 반면, 1994년 폐소화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겨우 7개월만 소요되는 등 멕시코 경제의 커다란 성장을 불러왔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호주, 칠레, 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오만, 싱가포르, 캐나다 및 멕시코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의 경제규모를 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14조 3,000억 달러이며, 무역협회 조사결과, 미국의 수출은 1조 1,000억 달러, 수입은 1조 6,0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EU로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한다. 그 뒤를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이 따른다. 미국은 2008년 기준으로 총수출의 2.7%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총수입의 19.0%를 차지한다. EU로부터는 18.2%를 수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2010.9.4) 이러한 미국의 수출실태를 고려함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fair)자유무역'으로 전환, 엄격한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구조와 FTA정책 등을 고려해 보면, 미국의 국제적인 통상 및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기업들의 무역기회의 증대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

역 등 국제무역협상을 지원하고 산업 및 경제 분석·협상지원·무역협약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국제무역조약에 따라 미국상품에 대한 해외시장을 개방하고, 개도국 정부 및 규제부처와 협력하여 각종 규제 장벽에 대한 해외시장을 개방하고, 개도국 정부 및 규제부처와 협력하여 각종 규제 장벽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수출업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일대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e-커머스와 인터넷을 이용해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6년 수출액 1조 370억 달러 중 9,104.7억 달러는 수출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 수출기업 숫자는 245,945개로서 총 기업의 약 0.9%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종업원 500인 미만인 수출중소기업은 239,289개로서 97.3%를 차지하고, 2,629.9억 달러를 수출하여 수출액 중 비중은 28.9%를 차지하고 있다.(김중운, 2009)

미국의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은 상무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상무부 산하기관인 US Commercial Service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사업은 미국 내와 해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EAC)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시장조사,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수출 전문 인력 양성 및 수출교육, 수출금융 지원,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시정 촉구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의 주요목적으로는 첫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두 번째, FTA체결국,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주요시장에 대한 수출증대, 세 번째, 자국기업의 수출기반 확충, 네 번째로 불공정 무역관행의 확인 및 시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 등 여타 지원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중소기업청은 미국 내 17개 지역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센터는 국제무역, 재무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지원과 자문을 하고 있다. 지역 센터의 중간 매개체가 되어 2003년 이래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대출을 2배 증가시켜 대출규모가 2006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 섰다. 이들 업체의 수출규모는 2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중소기업 중 수출 참여기업이 0.4%(오동윤, 2007)에 불과한데 반해 대출 받은 기업의 수출참여율은 1.5%에 달한다.

2. 캐나다의 FTA활용실태 및 전략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확산되는 가운데 캐나다 경제가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을 지속하려면 중소기업 국제화를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캐나다와 호주 정부는 중소기업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기업적·관리적 요소 분석을 토대로, 무역장벽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킹과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등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 2009.1.12)

캐나다는 1980년대 중반에 미국과 FTA교섭을 시작하여 1989년 1월 1일에 FTA가 효력이 발생되었고, 1994년에 멕시코를 포함한 NAFTA로 대체되었다. 캐나다의 미국으로 수출은 1980년대에 65% 증가했고, 그 후로는 85% 증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에 캐나다가 마이너스 0.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2008년 6.2%에서 2009년 7.0% 2010년에는 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다소 안일하게 대처해 온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금리를 인하하고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출업체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캐나다 수출 총가치의 35%를 창출하면서 캐나다 경제성장의 핵심 세력으로 기능해 왔다.

캐나다에는 2008년 12월말 현재 100만 개를 상회하는 민간기업 중 종업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이 절반을 넘는 등 중소기업이 98%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민간부문 노동력의 1/2인 500만 개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1998~2008년에는 민간부문 신규 창출 고용의 1/3을 책임졌으며, 2008년 한해에는 7만 개를 창출해 전체 신규 창출 고용의 70%를 담당했다.

〈표 12〉 캐나다의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분포 (2008년 12월말 기준)

종업원 수(명)	1~4	5~9	10~19	20~49	50~99	100 이상
비율(%)	53.9	20.0	12.6	8.3	2.9	2.4

자료 : 캐나다통계청, 2009.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는 중소기업을 종업원 수 100인 미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종업원을 1인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은 배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할

때, 캐나다 중소기업 중 25%는 제조업 나머지 7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여성 기업인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캐나다 독립사업체연맹(CFIB)이 중소기업인 9,577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글로벌화와 관계된 사업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51%(수출입 36%, 글로벌 공급사슬 15%)로 나타나고 있어, 캐나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역량 이외의 문제로 이들을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정책적 지원과 협조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FTA추진현황을 보면 유럽지역의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를 발효시키고 EU와의 FTA협상을 개시하는 등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⁶⁾를 통해 지나친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캐나다는 미국 및 멕시코 등과 함께 체결한 NAFTA를 중심으로 미주 지역 중심의 FTA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대내외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캐나다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과의 FTA 추진시 노동과 환경 관련 사항을 중요시 여겨 노동 협력 협정(LCA : Labour Cooperation Agreement), 환경협정(EA : Agreement on the Environment)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FTA 이후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캐나다-미국 상품수송과 이동거리에서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캐나다-미국 도로, 기차, 파이프라인 등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이다. 셋째, 캐나다-미국 가격차가 더 벌어진다. 넷째, 캐나다-미국 무역 분쟁이 지속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미국의 생산력 차이가 커진다. 미국과의 FTA 체결 후, 캐나다에서 전반적인 생산성 증진에 큰 실망이 있었고, 많은 무역 분쟁도 지속되었고 에너지 인프라에서 부적합한 통합(Inadequate integration)이 추진되었고 심각한 Non-tariff barriers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이래로 생산성 차이는 더욱 벌어져 미국의 productivity growth는 2.4%인 반면, 캐나다는 단지 1.6%에 그치고 있다.⁷⁾ 그리고 산업별로 캐나다는

6)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 연합협정(AA), 개도국 간 특허무역협정(PTA), 서비스협정(EIA), 관세동맹(CU) 등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7) 미국의 NAFTA와의 농업에서 교역은 1993년 이래로 두 배로 성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보다 두 배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NAFTA 체결로 캐나다와는 softwood lumber와 wheat, 멕시코와는 sugar와 corn syrup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특히, 캐나다달러가 미국달러와 가치가 비슷한 요즘, 캐나다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

산업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업부문은 FTA체결에 따른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농업장려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FTA체결 이후의 구조조정 단행이나 피해 수습의 차원보다는 생산성,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계 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기본적으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정부 개입이 적다.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캐나다는 시장경제에 관한 한 “no policy is a policy”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즉, 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을 유도하고, 경쟁력 없는 산업의 도태를 꺼리지 않으며, 그 결과, 캐나다의 산업구조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경쟁력이 있는 1차 산업을 제외하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고기술 2차, 3차 및 4차 산업이 발달한 모래시계형 산업구조이다. 이처럼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차세대 산업은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199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육성된 정보통신 인프라 및 하드웨어 산업은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반면, 생산 비용은 저렴한 개도국 FTA체결국과의 기술력 격차로 직접 경쟁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국으로의 시장을 확대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개별산업에 대해 FTA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닌 캐나다의 섬유 의류산업 프로그램(Canadian Textile & Apparel Industries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지원 예산은 캐나다 달러 기준 \$33백만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저임금 FTA체결국 및 개도국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우선, Productivity Project(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는 기업에게 사업계획서, 컨설팅 비용, 인건비, 장비 등의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비용에 따라 상환보조금과 비상환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둘째, Transformative Project(혁신적 섬유제품 개발 프로젝트)지원 분야는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와 동일하며 단계별 지원방식이다. 캐나다 섬유 의류산업 지원형태는 비상환 지원과 상환지원으로 구분된다. 비상환 지원은 \$10만(캐나다 달러 기준)이내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상환 지원은 프로

저 미국산과 경쟁이 어려운 상태이다.

젝트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캐나다 달러 \$10만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비용을 최대 \$50만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연간 지원실적은 \$22.5M(캐나다 달러 기준)로, 400개 섬유 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제조업에 대해서 경쟁력 없는 산업의 도태를 꺼리지 않는 실정이며 따라서 FTA체결 이후의 피해수습의 차원보다는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과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 차세대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다만, 섬유의류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고 전체 제조업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은 과거에 시행된 경험이 있다.

캐나다의 FTA추진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차별화하여 반영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무역조정전략 또는 경영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해당되는 내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지원부문은 대부분의 제도가 보조금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접적 융자지원은 많다. 캐나다 등의 국가는 각 산업의 연구개발과 경영혁신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해당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산업의 전반적 지원이 아닌 연구개발과 투자 등과 같은 특정 활동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 또한 2년에서 5년간의 지속적인 지원 관리를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실적의 향상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누락시켜 계속적으로 경쟁을 팽배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섬유의류산업 지원 프로그램(CATIP)의 경우 연간 40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기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활동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출지원, R&D지원, 투자 지원 등 지원내용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방안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또는 생산 품목이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 있는 기업들을 연계해주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기업체 동맹을 맺어 한꺼번에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며, 동맹을 맺은 기업 측면에서도 마케팅 지원 이외에 동종 기업 간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제4장 FTA체결에 따른 충청남도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및 지원 전략

충청남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체결이 확대되고 신흥경제국의 부상 등 세계시장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녹색·신성장동력 등 범 국가차원의 미래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선택과 집종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수출활성화방안을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충남지역의 대기업보다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모로 취약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전략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수출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지자체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역할 속에서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과정에서 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지원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의 효과적인 활용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수출확대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TA추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1) FTA 추진에 따른 수출 및 구조조정금융 지원체계 강화

충청남도의 기업들이 FTA타결 및 협상국가에 대한 진출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체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강화해야 한다. 우선, 수출금융측면에서 기존의 수출금융은 크게 대출, 보증,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출의 주된 형태는 무역금융, 수출자금 대출, 수출환어음 재할인 등이며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내 일정 한도를 재원으로 하여 상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 그리고 보증은 신용보증과 중장기보증이 있으며 수행기관은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신상철, 2009) 이처럼 수출금융은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

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된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은 2009년에 1,500억 원인데 2,46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용자범위는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표 13〉 중앙정부의 수출금융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지원업체수	127	157	229	261	275	263	279	506
지원예산	500	1,150	650	700	835	955	663	1,500
지원금액	938	1,411	1,519	1,709	1,366	1,182	1,218	2,460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과거 한미FTA추진에 따른 별도의 “해외마케팅촉진기금”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김주영, 2009.11) 이처럼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과 보증이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거나 현재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금융체계는 충청남도의 기업만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충청남도의 영세수출중소기업이 기존 중앙정부의 수출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수출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금융과 보증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FTA로 인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금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됨에 따라 한미 FTA준비 당시 무역피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는 등의 재원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여 중앙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무역조정지원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절차와 피해입증 등의 관련 사항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실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무역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별 구조금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기업지원시스템에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은 산업에 따라, 그리고 지원되는 기업경영 개선활동분야에 따라 그 유형과 금액이 다르다. 산업

별 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지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가장 크며, 활동별 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지원에서는 R&D 역량 강화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가장 크고, 세부산업 활동별 지원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지원으로는 자동차산업, 제약 산업, 농수산물 산업,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지역별·산업별 재생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펀드는 FTA추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일본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충청남도 자체의 지역재생 펀드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역중소기업 재생을 위해 독립행정법인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재생을 재무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중소기업재생펀드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지역금융기관 등과 함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출자를 하게됨에 따라 오이타, 후쿠오카, 이바라키, 토치기, 시마네, 토토리, 코치 및 아이치에 지역중소기업재생펀드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배경화, 2006)

〈표 14〉 일본의 산업활력재생법 운용현황

- | | |
|-----------|---|
| □ 신청절차 : | 기업이 공동사업재편 계획, 경영자원재활용 계획 사업재구축 계획, 또는 사업혁신설비도입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신청 |
| □ 지원내용 : | 주무대신이 인정할 경우에 세제조치, 상법 등의 특례적용, 정책금융 조치 등을 통하여 지원 |
| □ 재 원 : | 일본 산업활력재생법에서의 지원 중 감세 외에 일본정책투자 은행에 의한 저리 융자는 일본 정책투자은행자금으로 충당 |

2) FTA추진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관세 지원 확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FTA추진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관세청은 “1품목 다(多)세율체제”를 감안하여 소요량 제도 간소화 등 관세환급제도를 개편하고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중소기업의 무담보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체납액 5%이상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불

량목록에서 제외하는 “기업회생 프로그램”유지와 아세안·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품목이 해당국가에서 특혜관세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제원산지정보 및 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FTA 활용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관세혜택프로그램들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FTA 활용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과 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5~10% 정도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들 나라의 경우 기업의 특혜관세 활용 지원에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 공공부문의 지원비중이 일본은 51%, 태국은 74.3%로 우리나라의 27.5%에 비해 높다.

2. 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전략산업과 향토산업을 중심으로 한 “Two Track”지원체계 강화

FTA로 인해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과 인삼 등 음식료품으로 대변되는 향토 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일명 “Two Track”수출마케팅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전략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활성화전략으로서는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산업부문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력산업 중 전략산업부문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수출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 개척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대기업은 수출과 FTA체결국의 연구소나 펀드 등의 투자유치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선진기술 도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완성차-부품업체간 상생협력 강화한다든지, 전기차 R&D지원을 확대하고, FTA 활용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을 통해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각종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기술유출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든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수출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미래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규시장개척한다든지 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표 15〉 충청남도의 전략산업별 환경변화에 따른 차별화 전략

분야	환경변화	차별화전략
자동차	GM파산 등으로 인한 지각변동 환경규제와 그린카 개발 경쟁	완성차-부품업체간 상생협력 강화 전기차 R&D지원 확대 FTA활용 신시장 개척
반도체	특허 전쟁 지능형 미래반도체 개발	특허침해·기술유출 방지대책 상생·공동마케팅
디스플레이	가격경쟁 심화 디지털방송의 세계적 확산	수출보증한도 확대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규시장개척

자료 : 김주영, 2009.11, 전제서, p.40. 연구자가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재인용.

다음으로, WTO DDA협상과 FTA의 진전으로 농업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농가소득의 감소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향토산업인 인삼, 구기자, 젓갈 등 음식료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충청남도의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두 방향(Two Track) 마케팅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표 16〉 충청남도 향토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전략

구 분		빈도(개)	구성비(%)
성공요인	전체	65	100.0
	향토산업의 발굴	2	3.1
	향토산업의 계획화	15	23.1
	향토산업의 활용범위 증대	25	38.5
	향토산업의 홍보·마케팅	18	27.7
	기타	5	7.7
발전전략	전체	61	100.0
	전문화 전략	20	32.8
	연계화 전략	17	27.9
	다각화 전략	16	21.3
	통합 전략	11	18.0

자료 : 이관률, 2008.12, 『충남지역 향토산업 선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p.63.

특히 충남지역의 각 시군에서 생산하는 향토산업의 선정과 발전을 위해서 전문화, 연계화, 다각화의 세 가지 접근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의 전문화와 유사한 자원을 연계하고, 다양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수위주의 향토산업 전략보다는 수출상품화하는 세 가지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수요자인 수출기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강화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제도는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부문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런 수출지원제도는 충청남도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인프라 강화하는 명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 자금, 인력, 지원조직체계, 기술개발 등등 그 분야에 무수히 많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전시회 지원 등으로 인지도 개선 및 판로개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은 공동 A/S센터 운영, 공동상표 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구매상담회, 마케팅 기반 조성, 공공구매제도, 성능인증·보험제도,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있다. 그리고 수출지원사업안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출금융 지원 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온라인 수출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제도 등이 있다.

〈표 17〉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지원예산	10	10	10	10	85	85	70	50	47	25
파견인원	134	118	111	112	884	910	414	253	297	135
수출실적	43	18	41	40	55	51	29	32	42	28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표 18〉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애로상담	12,412개사	10,767개사	12,940개사	10,474개사	11,253개사
수출유망기업 지정·관리	731개사	803개사	812개사	1,305개사	1,087개사
수출기업화사업 지정·관리	1,700개사	1,533개사	927개사	900개사	1,447개사
수출금융	830개사, 2,027억원	411개사, 2,087억원	320개사 1,672억원	337개사 1,264억원	399개사 2,062억원
신용보증	892개사, 1,280억원	921개사, 2,049억원	898개사 1,761억원	722개사 1,730억원	937개사 2,819억원
수출보험·보증	1,650개사, 1,950억원	614개사, 1,981억원	653개사 722억원	326개사 2,207억원	365개사 2,128억원
마케팅지원	653개사	2,768개사	471개사	403개사	656개사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표 19〉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단위 : 억원, 개)

구 분	'98~'01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지원예산	274	128	151	191	214	200	160	155	120
지원업체	4,151	2,190	2,409	3,607	5,339	2,917	2,574	2,462	1,366
지원인증	4,151	2,190	2,409	4,419	6,467	6,253	5,644	6,765	3,416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주 : 2009년 협약체결된 사업 중 2009년 12월 31일 기준 3,363(8,546인증)업체와 협약체결 하여 1,366(3,416)업체 사업완료, 1,951(4,875인증)업체 사업진행 중

〈표 20〉 무역촉진단 파견

(단위 : 개, 백만불, 억원)

구 분	파 견 실 적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해외전시회 (지원업체수)	16회 (197)	27회 (320)	28회 (371)	40회 (525)	72회 (887)	72회 (1,035)	96회 (1,511)	112회 (1,913)	114회 (1,709)	120회 (1,643)	136회 (2,399)
시장개척단 (지원업체수)	15회 (187)	21회 (264)	20회 (299)	22회 (253)	29회 (331)	31회 (344)	25회 (305)	20회 (188)	12회 (172)	14회 (458)	30회 (1,023)
수 출 계 약	51	100	98	262	298	421	627	689	727	865	531
지원예산	10	18	18	24	53	71	102	110	80	98	155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주 : 2009년 업체수와 계약액은 해외전시회 17회, 시장개척단 3회 정산중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표 2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단위 : 센터, 개,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민간센터	21(11국)	26(12국)	37(14국)	49(16국)	65(20국)	75(27국)	80(27국)	95(29국)
지원업체	133	135	144	206	281	208	241	330
수출실적	46	233	361	370	391	335	411	354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표 22〉 중소기업 Global Brand육성

구 분	‘05	‘06	‘07	‘08	‘09
예산(억원)	30	30	22	22	22
사업규모(개사)	34	51	46	46	41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표 23〉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수출 BI 등 해외진출 인프라지원	지원업체	48	87	160	184	234	244	257	257
	지원예산(백만원)	1,800	2,217	3,075	3,964	5,870	7,077	7,786	7,692
	수출실적(백만불)	91	89	154	207	240	297	380	292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한편,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의 무수히 많은 정책들에 대해 충청남도에서 정책적 고려사항 중에서 주요 사업 예산비중을 보면, 시장개척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자금지원 14.68%, 경영지원이 10.49% 순으로 나타났다.(충남발전연구원, 2010.8)

그러나 국회예산처에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정부 지원책으로 “기술개발 지원”이 10.4%로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이화실외 5인, 2009.9) 현재 충청남도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제도상의 성능·품질인증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충청남

도 수출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규격인증과 연계하여 국내인증을 평가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충남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경우 국내의 인증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국내 인증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체결국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추진시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국고비율을 조정해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해외 전시지원 비용이 총 비용의 30%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전체 참가비와 편도 운송비,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업체당 지원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총 참가비용 등의 30%수준에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FTA체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강화

FTA활용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우선, FTA체결국에 대한 관세, 법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수요부문,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바이어의 통역이나 해외진출시 번역인력수요 부문이다. 이 두 가지의 수출전문인력부문에 대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역의 업계, 학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산학관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업그레이드된 수출중소기업이 현장에 바로 채용가능하고 활용가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내 대학과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센터, 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FTA대비한 인력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제, 충청남도에서 해외우수 상품전이나 해외바이어수출상담회시 지역대학의 G-TOP사업단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남도의 전략 및 향토산업별로 차별화된 교육훈련 및 산업기술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산업별 인력공급 분석을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충청남도 지역의 산학연간관이 공동으로 전략 및 향토 산업의 인적자원 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현장 전문 인력 및 기능 인력에 대한 상시 재교육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IT, BT, NT, E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제품고부가가치화,

차별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고급기술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강태훈, 2009) 이미 지식경제부에서는 FTA School이라고 하는 FTA 전문가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수출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역가치사슬에 대한 이해와 FTA 시장 진출 전략, FTA 원산지 실무를 비롯해 지역별, 업종별 FTA 활용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특혜관세를 포함, 비관세장벽 등 FTA와 연계된 이슈에 정통한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여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FTA의 혜택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FTA 관련 국가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FTA활용도 제고를 위한 FTA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충청남도내 기업들의 FTA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FTA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정내용을 파악과 활용의지가 요구된다. 이를 전제로 개별 FTA에 규정된 조건을 기업으로 하여금 잘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이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FTA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가이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면이 있다. 민간부문의 지원주체들이 대규모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경제단체들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LG경제연구원, 2009.11.11)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규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규정」, 「자유무역협정체결규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협상 전·후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협상의 중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해 당사자 및 국민에 수시로 설명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 이전 단계에 진행되는 공청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협상 진행과정에서 대외협상전략 노출을 이유로 협상내용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중심의 FTA협상진행이지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결집과 진행과정상의 논란에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공청회, 그리고 지자체에서 FTA추진에 따른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충청남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출제품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종, 성장전략, 수출국, 제품의 계열화 등을 고려하여 패키지로 구성하는 형태로 주요 FTA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의 수출마케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국내업체 대한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체결되거나 협상 타결된 한·인도 CEPA 및 한·EU FTA에 대해 충청남도는 이들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각 연구기관 및 관련 조합,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FTA체결국가 및 예정국가에 대한 별도의 수출입시 작성하는 송장, 원산지증명서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각종 정보제공기사, 협정 발효에 대한 충청남도만의 업종별 중장기 전략 마스터플랜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수출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의 수출만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충청남도 제품 전체 및 한국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자사의 주력상품을 수출하는데 머물지 않고 연관 상품의 수출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수출기업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산업 등을 자사의 주력상품에 결합시켜 복합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시장을 개척한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들이 나서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역할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에 FTA추진에 따른 해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 중 유사한 지원책은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09.10)⁸⁾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은 해외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제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허청도 2008년부터 비영어권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09.10)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성장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자체 브랜드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품에 비해 전반적인 디자인 경쟁

8) 중소기업청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성과분석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중에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는 기업의 비율은 47.7%이며, 전담 인력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관리 한다는 응답은 38.8%로 아직도 50%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마케팅 전담인력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보면 79.1%가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유형별 중소·중견기업의 핵심디자인 기반기술의 공동개발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우수기업 상품에 대해 전문가 매칭에 의한 제품 특성별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 24〉 지속성장·고부가가치의 핵심요인 : 디자인·브랜드

구 분	기존 전략	성장 전략
시 장	기존 시장 + 중저가 시장	중고가 시장
제 품	기존 제품군	고품질·고급디자인 강화 제품군
가 격	기존 가격	고가격
판 매	OEM, 재고 소진, 할인	신규 브랜드 개발, 홍보

자료 : 김현중, 2010, “ 혁신형 중소기업 확대 및 중견기업 육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p.96.

〈표 25〉 국가별 디자인 경쟁력

구분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스웨덴	한국	캐나다	중국	대만
점수 (순위)	134.5 (1)	131.7 (2)	126.4 (3)	107.9 (6)	100.8 (7)	99.5 (8)	92.9 (12)	90.3 (13)	83.0 (14)
등급	A			B			C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8.12, 『국가디자인경쟁력조사』

주 : 총 17개국에 대해 비교·평가, A, B, C 각 그룹별 상위 3개국 표시

5) 기술개발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기술개발네트워크 구축

글로벌화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으로 기업 간 수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는 자체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는 제휴나 아웃소싱을 통해 다른 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등 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기술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인 기술획득의 여부는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구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연구개발은 기술획득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가치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FTA 확대 등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

되는 정책적 환경에 직면한 주요국들은 개별 국가 간의 경쟁에서 전략적 제휴 단계인 국제공동기술개발의 단계로 과학기술정책 경쟁의 형태로 이행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종일, 2010.9)

반면에 국내외적인 기술협력 및 제휴에 있어 충청남도의 대기업·중소기업간 협업, 제조업·서비스업 간 협업, 이업종 제조업 간 협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 환경은 하청중소기업 및 개별중소기업의 능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량을 연계한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오래 전부터 전략적 제휴와 기술협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처럼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이업종 중소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연계 지원사업의 내용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이종욱, 2010.8.4)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대·중소기업간 관계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생산원가의 절감, 단품발주, 높은 모기업 전속성 등의 특징을 갖는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다방면에서의 경쟁력 강화, 개방적 수급거래, 수급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의 특징을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FTA 등 글로벌시대에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자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투자와 전략적 제휴, 기업 간 기술공유 및 공동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독자기술 개발 및 핵심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수출기업의 상품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의 단선적이고, 일회적인 기술개발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전 주기적인 R&DB 지원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충청남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의 초기단계부터 수출상품화를 목표로 시장 지향형 R&D를 추진하고, 제품시험, 표준화, 디자인, 인력양성, 기반구축을 포함한 전 주기적인 R&D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체계의 단계별로 충청남도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여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기술개발을 위한 상생네트워크 구축은 핵심기술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공급가치사슬 및 분업구조를 고려한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에서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충남북부지부, 한국생산기술원 등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한 대중소기업간의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아이디어상업화사업이나 대중소기업 협력펀드, 나아가서 기존 기업은행 등 민간금융권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프로그램 마련

1)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문 간 생산성 격차나 미래의 성장가능성,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청남도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의 주력 수출산업이었으나 중국의 급부상과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성장의 한계로 직면한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혁신과 품목전환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의 2009년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이며, 그 다음으로 기계류, 광산물, 철강 금속제품 순이었다. 특히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4%의 수출 증가를 이룩하였다.(충남발전연구원, 2010.8)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1, 2순위의 수출증가품목이 대부분의 대기업 제품이라는 것이다. 충남지역경제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나 최종재의 흐름을 보면 충남 전체 생산규모의 37.2% 정도인 48조 7,020억 원의 재화와 서비스가 타 지역으로부터 지역 내로 이입된다. 충남 지역경제 내 중간재와 최종재 수요를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규모는 전체 이입규모의 45%인 21조 9,720억 원에 해당하고, 충청권에서 충북(4%)보다는 대전으로부터의 이입규모(11%)가 상대적으로 큰 실정이다. 충남에서 생산된 전체 재화와 서비스 중 57조 2,520억 원 어치가 지역 외로 이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임재영, 2010.8.19) 따라서 충남지역의 전통제조업과 향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충청남도도 미국, EU, 인도 등 무역사절단 13회,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20회, 대규모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와 토털 마케팅 지원 분야 확대 등 13개 사업에 주력하여 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나 FTA체결국에 대해 기존 시행하는 개별전시회에 대해 과거 사후관리의 문제, 낙후전시회 참가로 인한 성과미비 등의 전반적인 효율성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전시회에 참가지원을 하는 업체가 10개 미만인 해외전시회에 대한 개별기업의 지원하고 있다.

결국, 충청남도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역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이 무역시장개방으로 인해 산업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활용하고, 충청남도 자체의 구체적인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세부 운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FTA추진에 따른 도내 무역피해기업 구제프로그램 마련

현재 협상이 타결되었거나 추진 중인 미국, EU, 일본은 시장크기, 수출 교두보, 경쟁 및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FTA체결이 이루어진 ASEAN의 경우 수출가능성과 무역장벽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기업의 현실적 관심이 높지는 않다.

반면에,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한미 FTA는 수출가능성과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FTA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한다.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측면은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들만이 생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나치게 경쟁만을 강조한 나머지,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받는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TA 체결로 인하여 막대한 불안감 및 추축으로 인해 산업자본이 국내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유입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FTA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미래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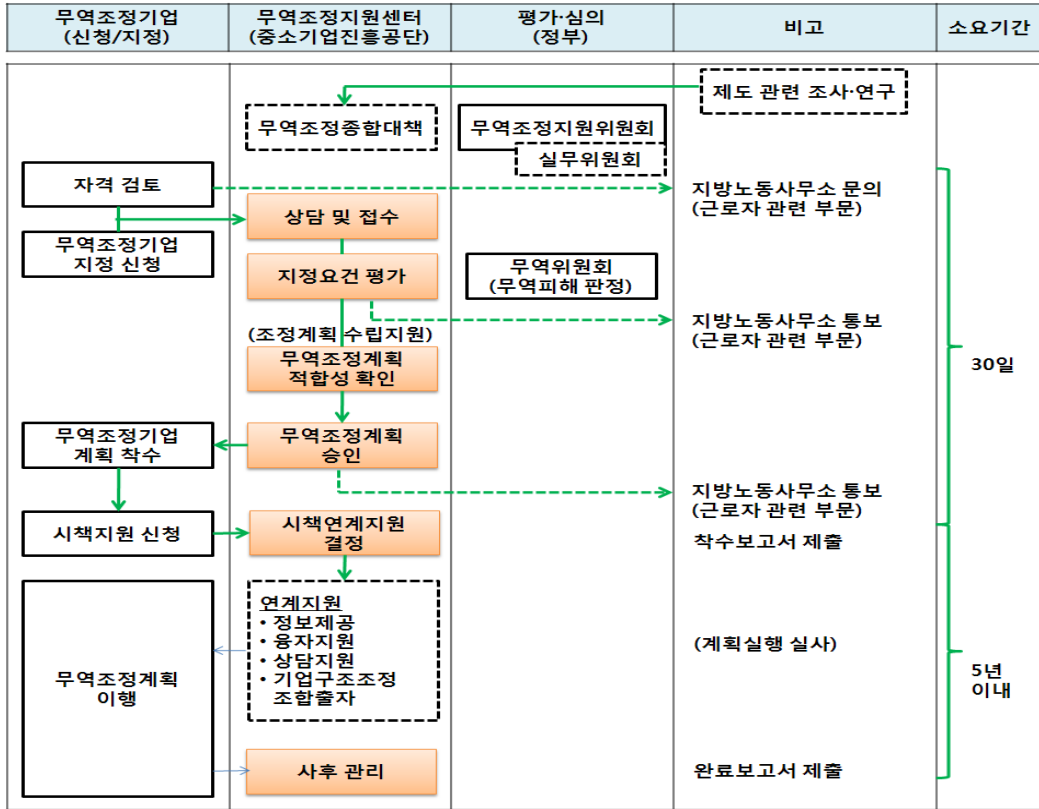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에 협상 타결된 한·EU FTA나 한·미 FTA 등을 고려할 때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외연을 확대하는데는 긍정적이며, 산업구조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충청남도에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는 업종도 발생하게 되며, 이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축산분야와 화장품, 보건·의료분야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저렴한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후생효과를 볼 수 있으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실업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국·EFTA FTA에서 발효후 15개월간 수입량이 43%가 증가하여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업종으로는 주로 선박과 자동차 부품 등의 기계요소와 의약품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졌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 체결 전에 수입량이 90억 달러에서 FTA체결 후 112억 달러로 증가하여 약 24%의 증가세를 보이고, 유화제품을 포함한 공산품 수입량이 증가하여 무역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ASEAN FTA의 경우 수입량이 211억 달러에서 222억 달러로 약 5% 증가세를 보였고, IT품목 수입량 증가율이 당시 커서 아세안이 본격적인 생산기지로 활용될 경우 향후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내수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무역조정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전환지원사업을 지원하여 피해기업의 사업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지자체 나뉠대로의 산업적 특색을 반영해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무역피해기업 및 업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대책을 충청남도의 피해예상업종 및 기업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역조정기업지원제도에서 FTA체결에 따라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융자·컨설팅 등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충청남도의 수출기업이나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적인 무역피해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사업추진체계



실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역조정기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는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비교시 25%이상 감소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FTA 체결에 따라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융자·컨설팅 등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 및 경쟁력의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비교시 25%이상 감소한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주요 대상이다.⁹⁾ 그리고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사업은 대내외적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FTA 이행의 간접피해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기업 지원하고 있다.

9) 자유무역협정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06.4월 제정, '07.4월 시행, '07.12월 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26〉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주요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계획 승인	자금용자		컨설팅		R&D	
		기업수(건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06년	104	62	300	39	3.8	—	—
‘07년	173	177	1,090	88	11.5	41	30
‘08년	237	230	1,148	152	23.1	31	28
‘09년	211	280	1,470	60	7.1	30	25
합계	725	749	4,008	339	45.5	102	83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2010.

이 밖에도 중앙정부에서 무역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R&D 지원과 유휴설비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7〉 FTA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조건, 실적

구 분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실적			
		‘07	‘08	‘09	‘10.6
R&D	- 과제당 1억원 (기술개발비용의 75%출연) - 예산(억원) : (‘07)30 → (‘08)30 → (‘09)25	41 과제 (30억원)	31 과제 (28억원)	30 과제 (25억원)	—
유휴 설비 유통	- 유휴설비 정보포탈 사이트를 통해 사업전환 유휴설비의 매입, 매각 및 관련 정보 제공 (www.findmachine.or.kr)	978 건 (434억원)	1,029 건 (439억원)	1,035 건 (442억원)	673건 (274억원)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관련통계』

제5장 결 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출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책 환경은 물론 정책의 목표, 대상 및 내용이 점차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동안 전통적인 통상정책이었던 무역정책은 수출보조금 등 무역보조금과 관세를 주요수단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내세워 가장 오랫동안 경제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경제통합추세는 주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경제블록을 조성하는 이른바 ‘몸집불리’가 일종의 국제적인 현상내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러한 통합의 주요한 도구로는 FTA가 그 중심에 있다.¹⁰⁾ 이처럼 통상여건의 개선,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역환경을 맞아 충청남도의 수출기업들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FTA를 통해 국제통상교류를 활성화하여, 미국, 아세안, 일본, 중국 등과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지역기업의 시장개척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의 완비가 급선무이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수출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과는 브랜드와 품질 그리고 기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판로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가상승과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수출채산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청남도는 유럽과 미국을 위시하여 이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이르기까지 자국기업보호와 안전 및 환경보존 등의 명목으로 시장진입장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기업들의 중요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개별기업의 문제를 떠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충청남도의 수출기업들이 소기의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환경변화를 감안한 지자체의 선제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10) 이종일, “아시아의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창설에 관한 연구”, 『ISSUE PAPER』 09-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9, p.3.

특히 충청남도가 FTA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지역별로 차별화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FTA추진에 있어 한·EU, 한·인도 등을 통한 기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나 한·EU FTA, 그리고 지금 추진을 검토 중인 한·중 FTA의 경우 그 효과가 산업 간에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충청남도의 향토산업이나 농수산업, 전통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충청남도 자체는 주로 사후적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FTA체결과 발효에 따른 산업 간의 이해차 발생은 산업구조 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후적 보완책 수준이 아닌 충청남도 자체의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고려한 FTA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외경제연구원외, 2010.10.6)¹¹⁾ 그리고 충청남도의 기업들로서는 FTA를 통해 자사상품의 수출 및 국내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유통채널 및 A/S 등 고객서비스 등을 강화함으로써 비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수출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니, 동시에 현지 직접생산 또는 합작투자 등을 통해 시장 내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경쟁력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속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에 효과적으로 충청남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기업들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11) 통상적으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효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CGE모형은 경제내의 모든 주체를 포괄적인 일반균형모형으로서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CGE모형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과 대내외 교역관계 등을 모형화하여 정책의 변화가 일반균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는 대표적인 분석모형으로 정책실험을 위해서 현실 경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특히 CGE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지표와 교역자료 이외에도 산업연관표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분석시점보다 과거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의 경제상황과 교역관계를 반영하는데는 미흡하다.

참고 문헌

- 강석기(2010.8), “2008년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조사”, 『Trade Focus』 Vol.9 No.4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강태훈(2009), 『FTA 및 CEPA가 경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2010.9-10), 『FTA세상』.
- 김주영(2009.11), 『해외마케팅 지원강화방안연구』, (사)한국조사연구학회.
- 김홍배외 3인(2010), “FTA가 우리나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분석 - 한·중·일 FTA를 중심으로 -”, 『충남지역연구 II』, 충남발전연구원.
- 대외경제연구원외(2010.10.6),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배경화(2006), 『우리나라와 각 국간 FTA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광주발전연구원.
- 산업연구원(2007.12.21),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
- 서울경제, 2010.8.26. 보도자료
- 성태규(2010.5), “민선5기 도정운영방향 설정”, 『현안과제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신동호·김세종(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남 중소기업 지원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신상철(2009), 『수출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 내국신용장 제도를 중심으로 -』, 중소기업연구원.
- (사)벤처기업협회(2009), 『한-아세안 FTA가 중소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
- 양준석(2001.7.3), “미국FTA협정과 무역·환경 연계정책의 새로운 전개”, 『KIEP 동향분석속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병규·이무량(2007.24),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단계와 과제”, 『미래기업』, 현대경제연구원.
- 이영주(2010.3), “2010년 중소기업 수출환경 점검과 정책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이재관(2010),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충남경제』 2010년 2월호, 충남발전연구원.
- 이종욱(2010.8.4), “국내 대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납품기업간 경쟁과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대책』, 한국경제연구원.
- 이종일(2010.9), “아시아의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창설에 관한 연구”, 『ISSUE PAPER』 09-15,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이화실외 5인(2009.9), 『중소기업 지원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임재영(2010.8.19),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 - 2007년)”, 『충남리포트』, 충남발전연구원.

임재영(201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충남리포트』, 충남발전연구원.

장지중(2010.9.1), “FTA시대와 중소기업”,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정대철(2007), 『FTA전개와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2010.7),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2009.10),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최낙균외 2인(2009),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미희(2007.9),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충남발전연구원(2010.8), 『월간 충남경제』.

한국무역협회, 『한국-EFTA 2005-2007 수입통계』, 각년도

한국생산성학회(2007.10), 『민간해외지원센터활용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0.9.1.

KOTRA(2010), “최근 세계시장 현황과 우리 수출시장의 특이동향”, 『Kotra Executive Brief 10-020』.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09』, 2009.11.11.

J. Obben and P. Magagula(2003), "Firm and Managerial Determinants of the Export Propens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waziland",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21, No.1.

<부록 1> 2010년도 16시·도 광역자치단체 수출지원시책 비교

사 업 내 용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주력사업	합 계	IT	철 강	기 계 섬 유	자 동 차	광 산 업	연 초 류	석 유 석 유 화 학	반 도 체	의 료 바 이 오	반 도 체	IT	자 동 차 태 양 광	석 유 화 학	전 자 IT	선 박	웰 빙 식 품
추진사업 건수	255	9	16	17	15	8	13	14	32	15	14	15	11	14	27	23	12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53	2	3	3	3	3	4	3	9	2	2	4	2	1	6	3	3
1)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9		1				2	1	1		1	1			2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2		1						1								
5) FTA 대응 통상진흥	4			1					1						1		1
6)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9				1	1			4			1			1	1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8	1	2	1	2	2	2	1	2	2	2	2	1	2	2	2	2
7) 통상촉진단 파견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2		1		1	1	1		1	1	1	1		1	1	1	1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87	3	7	5	7	2	4	5	8	6	4	7	3	4	10	7	5
9) 다목적 e-외국어 카탈로그제작지원	14		1	1	2			2	1	1	1	1			1	2	1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8				1		1		1	1		1		1	1		1
11) 수출보험료 지원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2) 국제비즈니스지원 센터 운영	7	1		1					1		1				2	1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9		1		1			1	1	1		1		1	1	1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4		1						1		1	1					
15) 해외지사화 사업	13		2	2	1		1	1	1			1	1		1	1	1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7	1	1	1	1	1	1		1	2		1	1	1	3	1	1
4. 전자무역 지원사업	26	2	3			1	2	2	9	2			2	1	2		
17)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1								7								
18) E-무역지원사업	11	2	2				2	1	1	1					2		
19) 전자상 거래 지원	8		1			1		1	1	1			2	1			
5. 기타	61	1	1	8	3		1	3	4	3	6	2	3	6	7	11	2

<부록 2> 16시·도 광역자치단체 수출지원시책 세부현황(2010년도)

■ 서울특별시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9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2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1	해외전시관 단체관 참가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1	
7) 통상촉진단 파견	1	1	해외통상사절단 파견 참가지원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3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1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	1	북경서울무역관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1	무역서포터즈 운영
4. 전자무역 지원사업		2	
17) 전자무역 프론터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2	2	인터넷 무역지원 해외 마케팅 직접지원 서비스 실시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1	
	1	1	서울-모스크바 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

■ 부산광역시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6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3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1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가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1	1	시 전시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1	1	시 전시회 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1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7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	1	통 번역 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1	수출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1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	1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
15) 해외지사화 사업	2	2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해외무역사무소 지원강화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1	국제 마케팅 인력양성
4. 전자무역 지원사업		3	
17) 전자무역 프론터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2	2	인터넷 무역 지원 One-Stop 지원센터 운영
19) 전자상 거래 지원	1	1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
5. 기타		1	
	1	1	해외통상자문위원 운영

■ 대구광역시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7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3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1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1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1	1	FTA활용 업종별 설명회 개최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1	
7) 통상촉진단 파견	1	1	무역사절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5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	1	종합 마케팅 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	1	수출중견기업 토털마케팅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2	2	수출초보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지사설립 초기단계 기업 수출인규메이터 입주지원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1	무역인력양성사업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7) 전자무역 프론터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8	
		8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자문관 사업, 수출대행 지원사업 2010 세계한상대회 개최 계기 수출중대 노력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안경산업지원센터, 바이오산업지원센터 등) 지역특화 산업 수출기업화 및 수출증가, 통상 커뮤니티 운영, 통상시책설명

■ 인천광역시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5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3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1	해외전시회(개별) 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1	해외전시회(단체) 참가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1	1	국내전시회(단체) 참가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1	무역사절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7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2	2	기업광고 지원 통 번역 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1	해외시장정보조사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1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	1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1	글로벌무역 전문가 양성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7) 전자무역 프론터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3	
		3	수출지원단 지원 해외진출전략설명회 무역인 초청 간담회

■ 광주광역시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8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3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1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무역사절단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바이어 초청 상담회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2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수출 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전문무역인 위탁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	
17)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1	전자무역 구축지원
5. 기타			

■ 대전광역시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3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4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특화된 전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2	특화된 전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해외 상품전시장 운영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기술수출로드쇼 및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4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해외 시장 조사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수출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통상 아카데미 운영
4. 전자무역 지원사업		2	
17)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2	인터넷을 통한 해외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1인1사 무역도우미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1	
		1	해외 물류운송사업 지원 - 코트라 공동물류센터, 체신청 국제특송(EMS) 이용업체 지원

울산광역시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4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3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전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전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1	종합 수출 상담회 Ulsan Export Plaza 2010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1	
	7) 통상촉진단 파견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5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2	해외홍보 지원사업(e-catalog) 제작 지원사업 포함) 수출유망 중소기업 디렉터리북 제작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수출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4. 전자무역 지원사업		2	
	17) 전자무역 프론터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	해외 유명검색엔진등록 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1	전자무역 수출도우미 지원사업
5. 기타		3	
		3	100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협업화(컨소시엄) 지원사업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

경기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32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9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1	경기우수상품전시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1	국제 전시회를 통한 도내 주력 수출산업 지원
	5) FTA 대응 통상진흥	1	FTA대응 통상지원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4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최,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 개최 G-FAIR 2010(경기우수상품박람회) 개최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8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	e-Book 제작 및 마케팅 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바이어 발굴 및 시장성 조사를 위한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수출거래의 위험 제거 및 완화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	국제비즈니스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지원
	15) 해외지사화 사업	1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무역전문인력양성교육
4. 전자무역 지원사업		9	
	17) 전자무역 프론터기업 육성	7	G-Trade 시스템 운영, 다목적 e-book 제작지원 글로벌 B2B 사이트 광고지원, 해외쇼핑몰 활용 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DB 제공, 수출품목 디렉토리 마케팅 지원, e-수출기업화
	18) E-무역지원사업	1	온라인 해외마케팅 및 무역대행
	19) 전자상 거래 지원	1	전자상거래 지원
5. 기타		4	
		4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UT(텍사스주립대)프로그램 운영 해외마케팅사업설명회, 수출기업인 간담회

강원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5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2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해외전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전시박람회 개최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해외무역사절단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바이어 초청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6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맞춤형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찾기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환율변동 등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2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지원 국가별 통관제도, 환율 등 실무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4. 전자무역 지원사업		2	
17)	전자무역 프론터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	해외유명 검색엔진 활용 제품홍보
19)	전자상 거래 지원	1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무역상담회 지원
5. 기타		3	
		3	유관기관 합동 사업설명회 : 권역별 (춘천, 원주, 강릉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경제운영 강원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통합 홍보 관리

충청북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4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2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국제무역박람회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1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충북 무역상담회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4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	전략산업 글로벌 마케팅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	영세중소기업 수출후속 지원
15)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7)	전자무역 프론터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6	
		6	내수기업 수출기업전환, 대표수출기업 해외홍보 국제통상시책설명회, 해외마케팅 실무협의회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운영,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 충청남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5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4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Target 해외전시박람회(개별) 참가업체 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1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1	국내개최 국제전시박람회 참가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7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	맞춤형 Total-Marketing 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바이어 찾기 및 맞춤형 시장조사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 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	해외마케팅 참여업체 사후관리용 통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15)	해외지사화 사업	1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7)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2	
		2	수출기업 육성사업 수출지원 전담 부서(통상지원과)설치

■ 전라북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1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2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국제박람회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1	
7)	통상촉진단 파견	1	무역사절단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3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수출보험 가입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무역아카데미 운영
4. 전자무역 지원사업		2	
17)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2	거래제의시스템운영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5. 기타		3	
		3	해외 세일즈 개별출장지원 국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전통공예품 지원

■ 전라남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4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1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3) 통상촉진단 파견		1	무역교류단 파견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4	
5) 다목적 e-외국어가탈로그제값지원			
6)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맞춤형 해외마케팅
7) 수출보험료 지원		1	수출보험료 확대 지원
8)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9)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국제 규격 인증 획득
10) 수출기업 사후관리			
11) 해외지사화 사업			
12)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무역전문가 양성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	
13) 전자상 거래 지원		1	전자무역 추진
5. 기타		6	
		6	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화 :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상품 등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수출용포장용기 급형제작 : 디자인 고급화 및 동일 제품 대량 생산, 대외이미지 수출도움미제 운영 : 퇴직한 무역전문가 활용 디자인 개발 지원 : 세련된 디자인개발 및 이미지 향상 수출용 시제품 개발 :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농수산식품 전략적 해외마케팅 강화 - 국제식품박람회 개최, 해외유기농 규격 인증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명예수출에이전트 및 해외 유통망 확충

■ 경상북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27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6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국제전시무역박람회 개별참가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2	2010방곡경주세계문화엑스포연계 경북 우수상품해외전시회 개최 경상북도 우수상품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1	FTA·CEPA 대비 전략적 무역사절단 파견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1	전략품목 토탈 마케팅 및 자동차 부품 벨트사업 참가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무역사절단 파견 - 신성장 녹색산업 전문 수출 촉진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 녹색산업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통상투자주재관발굴 우수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 해외자문위원연계 우수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10	
9) 다목적 e-외국어가탈로그제값지원		1	통번역 지원사업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해외시장조사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2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 경북베이징해외사무소 운영, 캄보디아문화통상교류센터 운영,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 운영, 해외통상투자주재관 파견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 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2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경북무역아카데미교육과정 운영,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 지원
4. 전자무역 지원사업		2	
17) 전자무역 프론트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2	해외유통채널 및 온라인 진출사업, 경북인터넷무역센터 지원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7	
		7	전략품목해외로드쇼 개최, 경제사절단 초청 및 차세대CEO 무역사절단 파견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지원,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중소기업수출협업화사업지원, 해외바이어 Red Carpet 지원사업,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 경상남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23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3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1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1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1	1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1	맞춤형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7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2	2	중소기업 번역지원사업 중소기업 CI(브랜드) 개발 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1) 수출보험료 지원	1	1	중소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	1	중국 상해사무소 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	1	ISO14000 등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 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	1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1	무역인 양성 강좌 운영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7) 전자무역 프론트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11	
	11		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지원, 녹색기술·녹색경영 인증획득 중속기업 컨설팅 지원 수출기업 예로해소 센터 운영, 그린산업 인력양성사업 지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 추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경남 4대 전략 산업 육성(로봇, 지능형 홈 산업, 녹색 바이오, 조선해양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 조선기자재연구원 분원 설치,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 사업 해외사무소 자체 무역사절단 시범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황

총 사업 현황		12	
1.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사업		3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1	1	해외 전시(박람회)회 개별 참가 지원
2) 해외전시회 공동관 지원	1	1	해외전시(박람회)회 제주공동관 지원
3)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개최			
4)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5) FTA 대응 통상진흥	1	1	FTA 활용능력 제고 및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2. 신규 바이어 발굴사업		2	
7) 통상촉진단 파견	1	1	무역사절단 파견
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	1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3. 해외 마케팅 인프라 지원 사업		5	
9) 다목적 e-외국어카탈로그제작지원	1	1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10)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	1	1	해외시장조사 사업
11) 수출보험료 지원	1	1	수출 보험료 지원
12)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4) 수출기업 사후관리			
15) 해외지사화 사업	1	1	해외지사화 사업
16)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	1	수요자 중심의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4. 전자무역 지원사업			
17) 전자무역 프론트어기업 육성			
18) E-무역지원사업			
19) 전자상 거래 지원			
5. 기타		2	
	2		수출확대를 위한 총력수출지원단 구성 및 운영 수출업무 지원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시스템 구축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배경화 부장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김양중 책임연구원

기획연구 2010-04 · FTA체결(예정) 국가에 대한 충청남도 수출확대 방안

글쓴이 · 배경화, 김양중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63(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64-9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